

# 이혼을 통한 여성의 자립과 글쓰기

—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의 『노부코(伸子)』를 중심으로 —

朴 裕 美\*

(e-mail : sabinaz@hanmail.net)

---

## 目 次

---

1. 머리말
  2. 권력에 기초한 부부관계
  3. 일과 결혼의 불협화음
  4. 홀로서기와 글쓰기
  5. 맺음말
- 

## 1. 머리말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의 『노부코(伸子)』는 자의식 강한 노부코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의 과정을 담고 있다.

근대적 교육을 통해 자아에 눈을 뜬 근대의 여성들은 사랑과 그 완결로서의 연애결혼을 이상적으로 받아들였다. 사회적 역할이 한정되어 있던 여성에게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은 곧 ‘자유’ 획득의 유일한 통로라는 환상이 되었고, 남녀평등과 권리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주인공 노부코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결혼을 이상화했으며, 이러한 결혼을 통해 자주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더욱이 “죽기 전에 하나라도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소망을 지니고 있던 노부코에게 작가로서의 일은 인간적 성장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결혼생활은 노부코를 아내라는 역할에 묶어 집안에 가둔 채 창작의욕을 상실케 했다. 일에 대한 열정을 품은 채 이를 발산하지 못하는 노

---

\* 충남대학교 강사. 근현대일본문학 전공

부코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아와 실존에 대해 자각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표현의 방법을 모색해 간다.

『노부코』는 자전적 소설로 작가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주인공 노부코의 시점을 통해 대상을 그리고 있어 타자의 행동이나 심리를 파악하는 매개자 역시 노부코로 한정된다. 그래서 노부코는 자신의 입장만을 변호하고 타자의 행동을 높은 곳에 서서 심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이 일부에서 피력하고 있는 자기만족적인 사소설(私小説)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자립하려는 노부코의 성장이야기에는 “후퇴는 없고 전진만이 있을 뿐”<sup>1)</sup>이라며, 주체적 존재로서의 모습이 지나치게 일관적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노부코는 ‘진실’과 ‘진리’를 스스로 구현하여 ‘이성’과 ‘정신’이라는 절대적 개념을 추구함으로써 통일적인 자기 주체를 획득하는 ‘남근(男根) = 로고스 중심주의’의 분신”<sup>2)</sup>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따라서 『노부코』는 이야기의 표층부분만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부합될 뿐 실은 남근적 텍스트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적 소설은 한 작가가 지닌 특수한 상황과 제한된 경험이 드러나는 한계가 있으나, 무대 중심 밖에서 소외된 주체로 서있는 여성적 경험과 의식을 현실로 드러내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형식이기도 하다. 특히 소설 속 노부코의 갈등은 주인공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남성 중심 사회와의 갈등이며, 더 나아가 근대사회를 형성하는 가부장제 하의 제도적 결혼에 대한 의문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점에 긍정적 평가가 주어지면서, 다소 한계는 있지만 여성 측으로부터 근대적 자아의 확립을 그린 작품이라는 평가가 거의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노부코』는 1970년대의 우먼리브운동(women's lib)<sup>3)</sup>을 거쳐 새롭게

1) 荒正人, 「伸子と真知子」, 『現代日本小説大系』 第二九巻, 河出書房, 1951. 427쪽

2) 千田洋幸, 「〈作者の性〉という制度—『伸子』とフェミニズム批評への視点—」, 『東京学芸大学紀要 第2部門 人文科学』 第45集, 1994. 322쪽

루스 이리가레이는 “남성이 모든 것의 척도이며 또 그 척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남성이다.”라는 사상 속에 만연해 있는 동일성의 논리가 플라톤을 출발점으로 하는 철학적 사고의 전통(로고스 중심주의)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한다. 동일성의 논리는 계속해서 서로 다른 성적 특질(남성과 여성)을 어느 하나와 그것의 부정형(남성과 남성이 아닌 것)으로 와해시키려 한다. 남근의 현존은 남성 정체성이라는 일의적 개념을 보장해 주고 또 이 남성 정체성이란 개념은 서구사상 체계 속에서 진리·기원과 같은 일의적 개념들과 얽혀있다. 하지만 남근이 현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종속된 타자가 필요하며 여성성이 부재나 결핍으로 규정될 때에야말로 남근은 비로소 충만함이라는 자격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체성으로서의 남성성은 빈 구멍으로서의 여성성이 존재할 때에야 가능하다.

3)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여성 해방 운동을 제 1차페미니즘으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우먼리브(급진적 페미니즘) 물결을 제2차 페미니즘으로 부른다. 1차 페미니즘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세계적으로 고조 되었으며, 제2차 페미니즘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각국을 석권했다.

구축된 페미니즘 비평에 의해, 보다 확대된 여자의 지평으로부터 재평가되었다. 성 지배를 분석의 요점에 두고 여자 고유의 문제를 여자의 눈으로 파악하려는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sup>4)</sup>

이당시의 논의에서 『노부코』는 주로 결혼에 의해 표면화된 불모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성장해 가는 여성의 내면을 그린 소설이며 이혼을 테마로 한 교양소설<sup>5)</sup>로 평가되었다. 여기에서는 자기평가의 기준을 잃고 아이덴티티의 상실에 빠진 노부코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가는 이야기임이 강조되었으며, 『노부코』는 새로운 여성으로서의 ‘주체’를 그리기 시작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노부코가 여성의 자립과 주체적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으며, 내면의 갈등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아와 실존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부코의 이혼이야말로 그 자각의 결과이자, 자아회복과 여성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 과정으로서 필요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부관계의 양상을 통해 결혼제도의 여성 억압적 측면을 밝히고, 결혼을 인간성장의 발판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상과는 달리 결혼생활 속에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잃어가면서 노부코가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노부코』는 작가 유리코의 투쟁적인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여성의 삶 자체가 자신이 가꾸어야 할 훌륭한 텍스트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혼한 후 노부코는 여자로서 힘들게 싸웠던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옮기는데, 특히 이 부분은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가 노부코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고백적·자전적 글쓰기야말로 여성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자기표현의 방법을 모색한 결과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권력에 기초한 부부관계

노부코는 당시로서는 예외적으로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결혼을 제의한 여

4) 고마샤쿠 기미(駒尺喜美)는 『魔女の文学論』(三一書房, 1982)에서 남성중심의 결혼제도의 본질을 적절했다고 해석했으며, 미즈타 노리코(水田宗子)는 『ヒロインからヒーローへ』(田畑書房, 1982)에서 노부코를 히로인 지향을 타파한 여성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5) 윈어는 Bildungssoman이다. 독일문학에서 유래되었으며 발전(發展)소설이라고도 한다. 주인공의 정신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발전을 그린 소설로서 주로 주인공의 유년시절부터 성년기까지의 역사를 통해 펼쳐 보임으로써 독자의 인간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성이었다. 인생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결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 옮긴다는 점에서 가히 선구적인 여성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연인사이가 된 계기는 고열과 경련에 정신이 희미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노부코가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받은 입맞춤이었는데, 그 때의 장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묘한 느낌으로 그녀는 반쯤 잠이 깨었다. 뭔가가 얼굴에 닿는다. 부드러운 입술이 오랫동안 그녀의 입술 위에 포개져 있다. 모든 신경이 깨어났다. 쓰쿠다라는 존재가 강하게 되살아났다. 노부코는 온몸으로 새로운 진율을 느끼며, 다시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쓰쿠다의 목에 두 팔을 두르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다. (26)<sup>6)</sup>

열에 들뜬 듯한 어렴풋한 사모로 시작되었다<sup>7)</sup>고 평가되는 노부코의 연애는 이처럼 노부코가 반쯤 정신을 잃었을 때 이루어진 쓰쿠다(佃)의 일방적 입맞춤에 의해서였다. 때문에 두 사람 관계의 반전에 있어서 마치 쓰쿠다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열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하는 순간 모든 신경이 깨어나, 스스로 쓰쿠다의 목에 두 팔을 두르며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다는 묘사는 분명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노부코의 적극성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노부코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랑이었으며, 노부코는 연애에서도 결혼에서도 자신의 의지에 따르는 앞서가는 의식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부코의 선구적인 의식이 드러나는 것은 그녀의 자유로운 결혼이기보다 오히려 기존 결혼제도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통해서이다.

인간은 모두 결혼한다. 남자도 여자도 결혼한다. 결혼이란 것은 인간에게 눈과 코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인간의 하나의 약속처럼 행해진다. 노부코는 그런 사실에 뭔가 어렴풋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중략)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막연한 답답함, 협소함, 진부함, 불안감이 언제나 노부코를 엄습했다. 인간은 결혼하면 왜 저리도 인생의 어떤 결승점에 다다른 것처럼 정착하여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고만 하는 것일까. 많은 남녀가 뭔가 자신답지 않은 존재에 이끌리며 어느 사이엔가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중략) 서로 사랑하는 남녀에게 있어 결혼이 유일한 길일까. 남녀의 사랑은 본래가 그

6) 본 논문은 <宮本百合子, 『伸子』, 筑摩書房, 1982>를 텍스트로 했으며, 인용문 말미의 ( ) 안의 숫자는 텍스트의 쪽수를 나타낸다. 인용에 있어 한국어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다.

7) 水田宗子 『ヒロインからヒーローへ』, 田畑書房, 1982. 90쪽

렇게 좀 좁고 답답한 것인가. 인생에는 뭔가 좀 더 다른 형태가 있어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언제나 노부코의 마음에 강하게 일어났다.(33)

결혼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하게 주어진 획일적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왜’라는 의문은 희석되고 만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인간 정신을 정체시키는 결혼제도에 대한 노부코의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을 인간적 성장에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는 노부코는 결국 남녀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이상을 품고 결혼하기에 이른다.

남편인 쓰쿠다와 노부코의 생활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당시의 일본적 관습과는 달리 상당한 일상적 자유가 노부코에게 주어져 있었다.

쓰쿠다는 오랜 동안 아메리카 여성의 생활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고 싶은 만큼 노부코를 자게 했다. 일상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싫어하지 않고 자신이 했다. 가사일도 노부코 혼자서 쓸쓸히 하지 않아도 되었다. (82)

쓰쿠다가 아내를 생활면에서는 대등하게 대하려는 남편이었음을 위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쓰쿠다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거라면 뭐든지 합니다” “어디까지나 자유이니까 뭐든지 좋을 대로 하면 된다”며 노부코를 위해 참고 견디는 자신의 헌신적 사랑을 강조한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노부코의 쓰쿠다에 대한 비판을, 그녀가 마치 검사(檢事)와 같은 위치에서 쓰쿠다를 규탄하고 있다고 평하며 오히려 쓰쿠다를 동정한다. 그리고 노부코의 이혼을 그녀의 일방적 자기 확대욕이나 중류적 예고이즘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sup>8)</sup> 그러나 이런 평은 노부코와 쓰쿠다 부부사이의 갈등에 대한 본질을 간과한 채 그 의미를 왜소화시켰다 하겠다.

노부코 역시 다른 아내들보다는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나 그것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위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관용을 베풀어 하사하여 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쓰쿠다를 홀로 남겨두고 여행을 갔다. 늦잠꾸러기였다. 노부코에게는 이러한 일상의 사소한 자유조차, 아내가 되면 대특권처럼 방문<sup>9)</sup>을 붙여 부여받는

8) 戦後の 다수의 비평에서 공통하고 있는데, “쓰쿠다는 언제나 피고의 위치, 즉 노부코라고 하는 준엄한 검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荒正人 (『伸子と真知子』, 『現代日本小説大系』 29巻 解説)의 해설이 유명하다

9) 방문 : 榜文. 예전에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길거리에 써 붙이던 글.

듯한 형용하기 어려운 우울, 남편이 그것만 부여한다면 불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것을 반성하지 않는 혼의 고독함이 있었다.(116)

남편은 여행을 가든, 늦잠을 자든 그런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일일이 부인의 관대함에 호소하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유로운 남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허락한 부인에게도 남다른 관대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는 다르다. 아내의 그런 행동은 아주 특별히 혜택 받은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허락한 남편은 관대한 아량의 소유자로 인식된다.

노부코에게 일상에서의 자유는 남편의 은혜로운 아량에 의해 가능할 뿐이며, 남편은 은혜를 베푸는 존재, 부인은 은혜를 입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이런 은혜의 관계는 부부의 성생활에까지 숨어든다. 노부코는 “그들 사이에는 부부관계도 자연스러움을 잃었다”며, “쓰쿠다의 뭔가 은혜적인, 어느 때는 그러한 행위조차 노부코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굴욕감에 괴로워한다.

“남성은 태어나면서 여성에 대한 특권적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과 같은 자유를 요구하면 곧 자신이 ‘희생’한다는 발상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sup>10)</sup>는 기술처럼, 쓰쿠다가 비록 당시의 다른 남편들에 비해 이해심이 깊은 듯이 보인다 해도, 그것은 실은 이해가 아니라 ‘허락한다’는 심리라 할 수 있다. 결혼생활에서의 이러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회적 관념에 따른 차별과 억압을 간과한 채, 노부코의 이혼 요청을 단순히 쓰쿠다에 대한 애정이 식은 노부코의 이기적 행동으로 비판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담론을 되풀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가 “결혼해 보니 하찮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 남자를 탄핵하여 헤어질 뿐인 이야기라면, 『노부코』는 결코 그것이 쓰이기 시작하여 삼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읽지는 않았을 것”<sup>11)</sup>라고 평하고 있듯이, 노부코의 쓰쿠다에 대한 비평은 단순히 쓰쿠다 개인에 대한 절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노부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해도 “어느 관계 하에 놓이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 즉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쁜 것”임을 확실히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노부코는 스스로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고는 “그를 들볶는 일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쓰쿠다가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

10) 駒尺喜美, 「女の眼から結婚をみれば―「伸子」の場合, 『早稲田文学』, 1978. 11. 34쪽

11) 宮本顯治, 『宮本白合子の世界』, 新日本出版社, 1980. 64쪽

다. 이는 결코 쓰쿠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생활태도나 가치관에 혹독한 비평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부코와 쓰쿠다의 갈등을 조장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 노부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음 문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떤 남자의 아내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로 옮겼을 뿐인 생활에는 의문이 있었다. (중략) 그녀는 쓰쿠다와 누군가를 비교해서 결혼생활이 싫다는 것은 아니었다. 서로의 성격에 의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과 결혼생활의 관례라고 할까, 일반 남녀간에 통용되고 있는 생활에 대한 감각, 활용방법에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발견했다. (132)

이처럼 노부코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그 상대가 쓰쿠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제도와 가정생활이라는 관습과 그에 동반하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 속에서 과생되는 갈등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문제는 근본적인 부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결혼제도에서는 부부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며 주로 남성 주도 하에 이끌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나, 노부코와 쓰쿠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성장환경과 계급차에 의해 권력관계의 역전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처음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이미지로 일관하던 쓰쿠다는 대학교에 자리를 잡아 가정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여받은 남성우위의 젠더를 작동시키기 시작한다.<sup>12)</sup> 이제 노부코는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좋았던 쓰쿠다가 아닌 교활하게 자신을 결혼생활에 매몰시키려는 위선적인 남편을 발견하게 된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체제의 일환으로서의 결혼제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횡적관계가 아닌 종적관계로 묶이게 된다. 이는 특히 남자가 가계의 수입을 책임지고 여자는 부양된다는 경제학적 역학(力学), 즉 경제적으로 주는 측과 받는 측의 분리에 의해 주종관계로 고착된다.

노부코는 결혼 전 경제적으로도 쓰쿠다에게 수입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자부했었다. 그러나 결혼 후 예술적 분위기의 결여 속에서 자신의 창작 활동이

12) 江種満子は “결혼제도에서는 개개의 자라는 환경의 차이가 젠더와 교차되면서 계층차와는 별도로 성차별화된 젠더의 문화구조가 권력관계로서 동시적으로 발동하나, 후자의 젠더 구성 쪽이 전자의 계층차보다도 한층 기본적으로 기능한다”고 설명 (『『伸子』論—ディスタンスとジェンダーの交点, 岩淵宏子・北田幸恵・沼沢和子編 『宮本百合子の時空』, 翰林書房, 2001. 159-160쪽

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쓰쿠다에게 의지하게 된다. 사고 싶은 책이 있어도 “꼭 필요한 것”이냐는 쓰쿠다의 반문에 포기해야 하는 노부코는 일상 생활에서 사소한 것까지 남편에 따라야 하는 자신의 부자유를 느끼고 울적해 한다.

작가라는 일을 갖고 있으며 유학까지 다녀온 교양인인 노부코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전무하다 할 수 있는 일반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조모가 살고 있는 동북의 시골 마을에서 만난 중년의 미망인이 “앞날에 불안을 느껴, 양로보험에라도 들듯이 결혼하려고 조바심내고”있는 모습이 이를 말해준다. 이에 대해 노부코는 여성의 “표본을 보고 있는 듯이 느꼈다”고 말하나, 결혼이 여성을 억압한다 해도 경제적 기반이 없는 여성으로서의 인생의 안위를 위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인 것이다. 노부코는 결혼을 통해 이제 자기실현의 수단으로서의 일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가결한 경제적 자립의 수단으로서 일이 갖는 의미에 눈 뜨기”<sup>13)</sup> 시작한다.

조모도, 오토요상도 모두 살고 싶은 대로는 살고 있지 않다.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음침하게 꿈틀거리며 살고 있다. (중략) 그녀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 깊이 이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방해물을 제거하고 끈기 있게 인생에 부딪치며 원하는 삶을 펼쳐가겠다는 열의가 끌어오름을 느꼈다. 몇 대에 걸친 가족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 유쾌하게 일생을 회상할 수 있는 여자가 있어도 좋지 않은가? (88)

노부코는 마치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 하듯이 이어져 온 여성들의 억압적 현실을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스스로 체득하고 있으며, 또한 주위 여성들의 삶도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자신의 문제와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유쾌한 일생을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반문 속에는 자신의 조모와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 대한 해방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그런 해결은 각자 각자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에 공통하고 있는 문제로서 인식은 하였으나 그런 갈등과 문제를 파생시키는 사회적 기반과 제도로까지는 그 의식이 확대되지 못하였기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변혁의 의지는 아직 “사회적·계급적 의식이 희미”<sup>14)</sup>했던 노부코에게는 시기상조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13) 岩淵宏子, 『宮本百合子一家族、政治、そしてフェミニズム』, 翰林書房、1996. 60쪽

14) 유리코는 “작가는 어렵듯하게나마 이들 갈등이 사회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느끼면

여성이 안고 있는 여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개혁의 필요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전 여성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점에서 그 시점의 성숙함과 앞선 의식을 읽을 수 있다.

### 3. 일과 결혼의 불협화음

노부코는 ‘성장의 장’이라는 결혼에의 이상을 품고 결혼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제도는 오히려 그녀를 단조로운 일상의 틀 속에 폐쇄시킨다.

노부코는 점점 자신의 마음에 안타까움의 응어리가 쌓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굶주렸다. (중략) 음식처럼 노부코에게는 꼭 필요한 예술적 분위기의 결여가 그녀를 마음 깊이 괴롭혔다. (중략) 쓰쿠다는 요즘처럼 생활이 정해지니 이따금씩 해왔던 지금까지의 정신상의 짐을 어딘가에 떼어내 버린 듯했다.(82)

결혼을 함께 풍요롭게 성장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여기며 부부간에도 활발한 정신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부코와는 달리, 일자리가 정해진 남편 쓰쿠다는 이제 자기만족하며 정신적 정체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노부코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도 성장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가정은 단지 사회에서의 긴장을 처리하는 안식처·휴식처일 뿐이었다. “소모하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적은 ‘우리들의 안온함이 생존의 표어’인 듯한 태도”를 보이는 쓰쿠다와의 결혼생활은, 자아가 항상 “불완전 연소인 채 타고 있는 듯한 불만족한 상태”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의 불연소는 노부코의 창작의욕도 감퇴시켜 일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작가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노부코에게 예술적 분위기의 결여나 그에 따른 창작의욕의 상실은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자신의 고통을 토로해 보지만 쓰쿠다는 “곧 괜찮아 질 거요. 이제 곧 익숙해집니다”라고 말하며 노부코의 두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가정이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 “무표정하게 회전하고 있을” 뿐인 결혼 생활에 사육되는 짐승처럼 길들여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운 노부코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생활에 익숙해져 처음 이루려

---

서 쓰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이십사오 년 전에 이 작품이 쓰였을 때, 작가도 독자도 『노부코』의 모든 발버둥이 일본의 근대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던 뿌리 깊은 낡음과 어중간한 새로움과의 모순에서 파생되고 있음을, 오늘날의 작가와 독자가 이해하고 있듯이 깨닫지는 못했다”고 비평하고 있다. (新潮文庫 『伸子』 下巻에 수록된 「작가후기」에서)

고 했던 목표도 잊어버린 채 자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에 휩싸인 노부코에게 있어, “사랑한다고 말하면 만사해결”이라는 식으로 되풀이 되는 쓰쿠다의 사랑의 맹세는 이제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

노부코는 처음에 사랑이 사람을 변화케 한다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결혼을 선택했지만, “사랑해도 음식은 필요하듯이 사랑해도 활발한 생존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다다르게 된다. 노부코는 이제 사랑으로 뭉친 한쌍의 부부가 아니라, 독립된 객체로서 삶의 태도도 이상도 행복의 성격도 판이한 두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그가 느끼는 종류의 행복은 노부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이 만족하며 그 행복을 취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며 자신은 흥미하지 않고 미소 짓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노부코는 먹고 싶은 인간이었다. 심하게 공복을 느끼는 인간이었다. 먹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인간이었다. (중략) 부탁하면 남편은 그의 몫을 나눠 줄 것이다. 그러나 노부코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더욱 청결한 것을 원했다. (91-92)

노부코에게 절실히 ‘먹고 싶은 것’의 실체는 “예술적 분위기”의 충족에 의해 채워지는 “활발한 생존”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한, 정체된 삶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편과 자신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인식한 노부코는, 쓰쿠다는 쓰쿠다로서 살아갈 장소가 있으며, 자신이 그에게 기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부코는 자신이 아니라면 쓰쿠다는 그다운 입신출세의 희망과 일상의 습관과 참고 견디는 미덕 속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체념하며 자신이 쓰쿠다에게 걸었던 기대가 너무 컸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인정했다고 해서 쓰쿠다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노부코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삶을 꾸려가려는 둘 사이의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고민하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신이 원하던 삶도 아니며 한 인간으로서 ‘나’라는 의미가 희석되어져 가는 길임은 자명하다.

“뭘랄까, 남자는 남편이 되어도 어디까지나 그 사람으로 인정되잖아요. 아내는 뭔가 천성 이외에, 아내적 속성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아내라는 위치는 여자의 적응성을 극단적으로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하지 않을까요?……‘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 채 생활하는 것이기에 무섭겠지요?” (110)

일할 수 없다면 결혼할 수 없다고 단언하던 노부코는 “사랑이나 결혼보다는 작가로서의 길이야말로 자신이 살아갈 길임을 확실히 자각”<sup>15)</sup>하고 있었으며 “죽기 전에 한 편이라도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야 말로 그녀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준다.

그런데 결혼은 그녀에게 아내라는 역할과 그에 따른 가사라는 무거운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게 했다. 일상사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 사소한 것일 뿐, 아내로서 요구받는 일들이 노부코의 본성을 소멸시키거나 그녀의 자아에까지 위협을 가하는 성질인가 하는 의문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내의 시간들이 창작활동 대신 이런 사소한 일들로 빈틈없이 빼곡히 채워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편 중심의 생활형태, 남편과 아내의 주종 구조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구조논리를 논리로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성적, 직감적으로 예리하게 이해하고 있었다”<sup>16)</sup>는 설명은 당시의 노부코의 인식 단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노부코는 결혼이라는 것이 아내로서 주체를 양도하는 것이며, 아내라는 자리가 한 사람의 여자가 인간이길 포기하는 길은 아닌가하는 회의를 품게 되었던 것이다.

노부코는 자신의 “활발한 생존력”과 “자유와 독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강한 본능”에 의지하여 여성들을 가두는 결혼이라는 새장을 깨고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그리고 이혼을 통해 스스로 수렁과 같은 결혼생활에서 빠져 나온다.

#### 4. 홀로서기와 글쓰기

이혼을 단행한 노부코는 요시미 모토코(吉見素子)와 공동생활<sup>17)</sup>을 시작한다. “‘울타리 안’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노부코가 ‘울타리 안’에서 쉬고 싶어 하던 인물과 결혼”<sup>18)</sup>해 버렸던 자신의 실패를 거울삼아 노부코는 이제 부모의 울타리에서도 남편의 울타리에서도 독립하여<sup>19)</sup> 자유롭게 고자 한다. 뱀이 아무리 상

15) 앞의 책 『宮本百合子—家族、政治、そしてフェミニズム』, 49쪽

16) 앞의 글 「女の眼から結婚をみれば— 伸子」の場合, 33쪽

17) 요시미 모토코와의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쓰인 소설이 바로 『伸子』의 속편에 해당하는 『두 개의 정원(二つの庭)』(『중앙공론(中央公論)』, 1947.10~1950.12)이다. 모토코의 실제 모델은 유아사 요시코(湯浅芳子)라는 러시아 문학가로 유리코가 이혼한 직후부터 공동생활을 하였으며 유리코가 소비에트로 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유리코의 소비에트 기행을 소설화한 작품 『도표(道標)』(『展望』, 1947.10~1950.12)와 함께 「노부코」 3부작이라 불린다.

18) 津田孝, 「『伸子』から『道標』へ—宮本百合子のリアリズム論—」, 『民主文学』353호(1991. 2), 76쪽

처 입는다 해도 이미 벗은 허물에 “두 번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처럼, “노력해서 빠져 나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신념”을 관철시킨다.

쓰쿠다와 헤어져 넓은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녀에게 있어 경제적 자립은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노부코이지만 결국 결혼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또한 남편의 수입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혼 전의 자신감과는 달리 결혼 후에는 별다른 수입원을 갖지 못한 채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 왔다. 자신이 자라온 세계로부터 탈출을 모색한 그녀였지만 진정한 자립을 이루지는 못했었다. “인간적인 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가 금전적 문제를 부정하는 형태로 주장되었기에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sup>20)</sup>라는 평은 이와 같은 노부코의 현실적이지 못한 의지욕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노부코는 이혼을 통해 이런 모든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립을 모색하게 된다. 아직 이혼하는 시점에서조차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노부코였으나 결국 그녀는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험난한 사회의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노부코에게 이제 경제적 자립은 관념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이런 노부코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토코(素子)와의 만남은 이혼을 단행하게 하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노부코에게 모토코의 삶은 새로운 여성이 살아갈 길을 시사하는 듯이 여겨졌으며 여성끼리의 동지애적 우정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노부코는 자신의 결혼과 이혼을 “단지 불행이나 실패”로 끝내지 않았으며 그녀의 이혼은 여성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노부코는 “자신의 정신과 육체로 얻은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통해 “시대와 성의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자신이 거쳐 온 생활의 길 전체를 살펴보고 해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한 시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자신을 정립할 수 있었다.<sup>21)</sup> 이제 인간적 삶을 지향하고 성장하려 했던 그녀 개인의 의지와 욕망은 그녀 자신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가 맞본 결혼생활과 그 고통에

19) 유리코는 「행복에 대해(幸福について)」(『婦人画報』, 1946)에서, 기사(騎士)에 얽힌 전설을 예로 들며 여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중세의 기사와 같이 여성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남성이 아니라 실은 남성으로부터의 ‘독립’임을 말하고 있다.

20) 伊豆利彦 「伸子」 『文化評論』, 1976. 2월. 28쪽

21) 『노부코』의 속편에 해당하는 『두 개의 정원』에서는 모토코와의 공동생활 속에서 자신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된 자신의 경험을 소설화한 내용이 들어 있음.

대한 생생한 기록을 통해 그녀는 인습과 봉건적 도덕에 복종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수한 여성들의 생활을 위한 싸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싸움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즈타 노리코(水田宗子)는 “자기표현에의 욕구를 ‘쓰기’의 중핵에 놓은 근대 여성문학”은 여성의 전형적 스토리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전형을 찾을 수 없는 자신을 표현하려 했기에, ‘나’라는 일인칭으로 말하는 데서 출발했다”<sup>22)</sup>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처럼 글쓰기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근대여성문학의 특징을 ‘나의 이야기(自己語)’라고 표현한다.

여성은 오랫동안 “공적으로 유통되는 표현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sup>23)</sup>왔으며,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은폐당한 채 사회가 만든 전형적 모습으로 구형되었다. 오랜 동안 남성이라는 타자에 의해 삼인칭으로 그려지며 자신의 내면을 봉인당했던 여성은,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자아의 각성과 쓴다고 하는 자기표현의 욕구를 결합시킨”<sup>24)</sup> 작품들, 즉 ‘나의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여성들의 ‘나의 이야기’에 대해 근대의 여성시인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산이 움직이는 날 온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산은 얼마 동안 잠들었을 뿐.  
(중략)  
잠들어 있던 모든 여성이 오늘에야 비로소 깨어나 움직일 것이다.

일인칭 문장만을 쓰자.  
나는 여자이다.  
일인칭 문장만을 쓰도록 하자.  
나는, 나는.

위의 노래는 일본 최초로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예지라 일컬어지는 『세이토(靑鞆)』<sup>25)</sup> 창간호에 실린 권두시<sup>26)</sup>로 유명한데, 이처럼 여성 문예지의 창

22) 水田宗子 『物語は版物語の風景—文学と女性の想像力』 田畑書店, 1993. 7쪽  
23) 水田宗子 『ヒロインからヒーローへ—女性の自我と表現』 田畑書店, 1992. 213쪽  
24) 長谷川啓 「書くことの<狂>」 岩淵宏子外編 『フェミニズム批評への招待』 学芸書林, 1995. 66쪽  
25) 1911년 9월,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를 중심으로 창간되어 1916년 2월 영구 휴간을 맞이하기 까지 총 52권이 발행된 여성문예지로, 특히 일본 최초로 여성들만의 손으로 만들어진 잡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잡지명 ‘靑鞆’은 18세기 영국 사교계에서 문학에 취미를 가진 여성을 조롱하여 칭하

간을 기념하면서 쓰는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 깊다.

요사노 아키코는 1연에서 각성하는 여성들의 출현을 노래했다면, 제2연에서는 “일인칭 문장만을 쓰자”며 여성의 ‘자기’ 표현을 제창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자기표현에서 이야기되는 ‘일인칭’은 형식이라기보다는 ‘나’를 지닌 여성을 표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인칭 사용 여부를 떠나 작가의 체험이 대부분 녹아있거나, 삼인칭이 사용되었다 해도 주인공 한 사람의 시점으로 묘사되거나 설명된다면 이는 여성의 ‘나’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부코』는 여성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성문학에서 자신을 결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회와의 갈등보다 부권제에 깊게 얽혀있는 자신의 내면과 언어라는 지적이 있듯이 여성의 자아와 여성적 글쓰기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런 논점으로 보자면 작품 『노부코』의 표현은 리얼리즘에 기초하고 있어 여성적 글쓰기에서 다분히 벗어나 있다. 그렇기에 작가 유리코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표현방식은 페미니즘 분석에 있어 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적 글쓰기가 특정 양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문제시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내용을 무시한 채 표현양식에 치우친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정의는 무의미하게 생각된다.

이처럼 『노부코』를 비롯한 유리코의 작품이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소설’로 기울어지지 않은 것은 작가 내면에 대한 탐구와 해부가, 작가의 사회와 인간 전반에 걸친 문제의식이라는 필터를 통과해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유리코 나름의 여성적 글쓰기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리코의 글쓰기 방법, 표현 방법은 여성의 자아와 표현이라는 거시적 견지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투쟁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자기 극복의 원천이 된다”<sup>27)</sup>는 것은 유리코의 글쓰기에서

던 ‘blue stocking’의 역어로, 여성들이 잡지를 발간하면 ‘blue stocking’과 같은 야유를 듣게 될 게 분명하니 선수를 쳐서 잡지명으로 하자는 이쿠타 조코(生田長江)의 조언을 받아들여 제명하였다. 창간호의 권두시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부질없는 말(そぞろごと)」과 히라쓰카 라이초의 창간사 「태초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つた)」는 대표적 여성해방 선언으로 현재까지도 주목받고 있으며, 일본여성의 근대적 각성을 촉구한 페미니즘의 효시로서 상징성을 지닌다. 수많은 여성들이 문학가·비평가로서의 재질을 닦을 수 있는 무대가 되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작가 대부분이 작품을 게재하고 있어, 당시 여성문학자의 총결집으로 평가받는다.

26) 제목 ‘そぞろごと’

27) 이덕화,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예림기획, 2005. 186쪽

여성들의 글쓰기가 제한된 가부장적 사회로부터의 탈출과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심리적 탐색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여성들의 ‘투쟁적인 삶’ 자체가 바로 ‘생생한 텍스트’로, 여성의 글 중에 자신을 모델로 하는 자서전이나 자전적 성격의 소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노부코에게 이런 ‘글쓰기’는 정신적 자립이나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의 원천이 되며,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는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의 견디기 힘든 고통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작품 속에 그려냄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 가는 무수한 여성들과 이어지게 된다 하겠다.

## 5. 맺음말

노부코의 이혼은 단순히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아내의 제멋대로의 행동이나 노부코의 지나친 성장욕구에 의한 기형적 해결이 아니라 모든 남녀 관계에서 보이는 억압과 차별에 대한 자각에 의한다.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아내라는 역할에 맞추어 변형되어 가는 주체자로서의 균열을 느끼면서 본래의 자신을 찾고자 하는 한 여성의 자아 찾기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노부코는 이혼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자신이 성장한 가정, 그리고 결혼에 의해 만들어진 가정의 굴레 속에서 고심하던 노부코는 자신만의 특수한 문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 일반적 문제로 시야를 넓히게 된다. 그리고 여자로서 힘들게 싸워왔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체적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회구를 글쓰기에 담아낸다.

『노부코』는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작가 내면에 대한 탐구와 해부가, 작가의 사회와 인간 전반에 걸친 문제의식이라는 필터를 통과해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작가 미야모토 유리코 나름의 여성적 글쓰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코의 자전적 소설인 『노부코』는 주제나 구성면에서도 여성 문학의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공동 체험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 연대의식에 기반한 페미니즘 문학 창출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유리코의 삶과 문학적 전개를 볼 때 그녀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

이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

‘인간’이었다. 그녀가 여성문제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근거에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는 휴머니즘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유리코의 사상은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남녀의 조화로운 세계, 인간적인 삶의 지향과 일치하며, 그녀의 작품들은 페미니즘 문학비평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상적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유리코의 특정 사상이나 정치색을 떠나, 전 작품에 흐르고 있는 유리코 문학의 공통된 모티프에 대하여 페미니즘 비평에 입각한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작가 유리코의 투쟁적인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노부코』는 여성의 삶 그 자체가 자신이 가꾸어 나가야 할 훌륭한 텍스트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노부코』와의 만남을 통해 8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바로 이 시대 여성들의 삶을 반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參考文獻】

- 이덕화,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예림기획, 2005  
 荒正人, 「伸子と真知子」, 『現代日本小説大系』 第二九巻, 河出書房, 1951  
 伊豆利彦, 「伸子」 『文化評論』, 1976. 2  
 岩淵宏子, 『宮本百合子一家族、政治、そしてフェミニズム』, 翰林書房, 1996  
 岩淵宏子・北田幸恵・沼沢和子編 『宮本百合子の時空』, 翰林書房, 2001.  
 江種満子, 「『伸子』論—ディスタクシオンとジェンダーの交点」, 岩淵宏子・北田幸恵・沼沢和子編 『宮本百合子の時空』, 翰林書房, 2001  
 駒尺喜美, 「女の眼から結婚をみれば—「伸子」の場合」, 『早稲田文学』, 1978. 11  
 \_\_\_\_\_ 『魔女的文学論』, 三一書房, 1982  
 津田孝, 「『伸子』から『道標』へ—宮本百合子のリアリズム論—」, 『民主文学』353호, 1991. 2  
 千田洋幸, 「<作者の性>という制度—『伸子』とフェミニズム批評への視点—」, 『東京学芸大学紀要 第2部門 人文科学』 第45集, 1994  
 長谷川啓 「書くことの<狂>」, 岩淵宏子外編 『フェミニズム批評への招待』, 学芸書林, 1995  
 水田宗子, 『物語は版物語の風景—文学と女性の想像力』, 田畑書店, 1993  
 \_\_\_\_\_ 『ヒロインからヒーローへ』, 田畑書房, 1982  
 宮本顕治, 『宮本百合子の世界』, 新日本出版社, 1980  
 宮本百合子, 「幸福について」, 『婦人画報』, 1946

## 要 旨

本稿は、伸子の夫婦関係の実相に照明を当て、結婚という制度の女性抑圧の側面を明らかにした。人間成長の場にしたいと願い結婚に踏み込んだ伸子であったが、実際の結婚生活の中で‘私’というものがなくなっていくことに気づき苦しむようになる。そして恋愛結婚に基づいた理想的な近代家庭が相変わらず女性にとっては束縛の対象とな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このように女性の自立と生き方について悩んでいた伸子の内面の葛藤に基づいて考察を試みてもみると、女性としての自我と実存を自覚した伸子において、離婚は自我回復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立のための一つの過程として必要であった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伸子』は作者である宮本百合子の結婚と離婚に至る過程が描かれ、女性の人生そのものが見事なテキストになることを見せてくれる作品であると言える。家庭の絆や束縛で苦しんだ伸子は自分の悩みが自分だけの問題ではないと悟り、社会一般の問題に視野を広げるようになる。伸子は真実の愛情の結合としての夫婦関係がどうであるべきか絶えず問いかけ、探求したと言える。そのゆえ伸子の離婚はただの失敗に留まらず、精神的また経済的にも自立して生きていく切っ掛け、自分捜しの模索として意味付け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女性として戦った自分の経験に基づいて、主体的な人間として生きていきたいという願いを小説に描くようになる。このように見ると女性の告白体小説、自己語りは女性解放のための実践記録であり、自己表現の方法を模索した結果だと言えるだろう。

キーワード：宮本百合子、伸子、結婚、離婚、自立、自己表現、自己語り、告白、女性連帯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0. 3. 13  
2차 심사 : 2010. 3. 27